

장애아동 형제의 부담감이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the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in School and in the Family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서명석*

Dept. of Welfare, Daejeon University

Candidate : Seo, Myoung-Seok

〈Abstrac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djustment of the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were explored in this study. More specifically, how so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the burdens the handicapped children's siblings experience, and how such burdens affect their adjustment in school and in the family were examined.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139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and middle schools, who have one or more handicapped siblings.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their handicapped siblings who received services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Daejeon and Chungcheong area.

The scale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easurement of Burdens for Handicapped Children's Siblings (Lee, Yoon Hwa, 2002), FACES (Olson et al, 1986), and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Adjustment in the School (Lim, Jung Soon, 1993).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handicapped children's siblings have no difficulty in adjusting in the family if they have a religion, an elderly mother, and a high family income. They have no difficulty in adjusting in the family and in school, as long as they have no or little negative change in family relationship, low psychological burden, and no negative relational change for the handicapped sibling. Father's age and the family income were the only factors that affect their adjustment in school.

▲주요어(Key Words) : 가족적응(adjustment in the family), 학교적응(adjustment in school), 부담감(burden)

1. 서론

1980년대에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의 등장과 탈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애인을 가족에서 분리하거나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가족 내에 거주하게 하여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즉, 가족을 1차적인 보호자로서 인식하고 치료기간 내 함께 생활하며 재활

에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서 가족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가족이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되었다.

장애아동으로 인하여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제 일차적인 양육자인 장애아동 모에게서는 우울이나 사회로부터의 도피적 태도, 인생의 패배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많은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며(서혜영, 1992), 장애아동 모의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 주저자 : 서명석 (E-mail : ggomabi72@lycos.co.kr)

보고 되었으며(송현정, 1999), 장애아동을 매일 돌보고 양육하는 것 또한 부모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 문화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장애아의 치료와 교육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며, 장애아동의 미래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죄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allander et al. 1990).

지금까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장애아의 어머니가 가사는 물론 장애아의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의 하나의 하위체계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형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아동형제의 부담감, 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장애아동형제의 우울감과 대하는 행동, 장애아동과 정상형제간의 형제관계 연구,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김수희, 2002; 김홍주, 2001; 양미숙, 2003; 최차숙, 2002; 이경구, 1998).

실제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는 장애아동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할당되어야 하는 가족의 관심이나 배려가 장애아동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서 채워져야 될 관심이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가족에게 장애를 가진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 양보를 강요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에 함께 있으면서 부모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가정의 정상자매가 겪게 되는 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심리적 갈등과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는 일반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장애형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장애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래의 친구들에게 숨기기 위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등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나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정확히 주장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아동형제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회인 가정과 대인관계를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되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 관한 연구는 비장애형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동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도 장애아동 개인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뿐 아니라 장애아동이 속한 환경 전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애아동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장애아동의 특성, 가족의 특성 그리고 비장애형제의 특성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므로써 비장애형제의 건강한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비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특성, 장애아동의 특성,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은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특성, 장애아동의 특성,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담감은 가족적응과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 관한 연구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장애아동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비장애형제의 부담감 및 욕구들은 장애아동 부모와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비장애형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Meyer와 Vadasy(1994)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게 있어서 장애형제를 지닌 것은 그들의 삶의 다양한 면 중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을 단순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를 지닌 형제와 자신을 과잉 동일시하여 자신도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를 지니게 될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그 한가지로 이러한 과잉 동일시는 장애형제의 장애상태가 경하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애일 경우가 특히 심하다(Grossman, 1972). 또한 장애형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형제의 장애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장애형제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기도 한다. 장애아동의 일반형제는 많은 경우에 아주 어린 나이일지라도 장애형제로 인해 고민하고 그들의 부모가 장애아동에게만 몰두하고 있다고 인식한다고 지적되고 있다(Murphy, Pueschel, Duffy & Brady, 1976). 이 외에도 소외감, 외로움, 분노, 책임감에 대한 증감감 등 또래에 일반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명선(1987)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의 정상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은 자기비하, 수치심, 죄책감, 부모의 장애아동에 대한 보상심리로 인해 비장애자녀에게 갖는 기대가

높게 되므로 비장애형제의 부담감, 분노, 정신지체형제의 장애에 대한 걱정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민경(1996)의 연구에서는 일반형제의 장애형제로 인한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은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정상형제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arber(1963)는 장애아동의 출현은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으로 인해 심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지만 동년배의 역할기대보다 많이 성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역할긴장으로 정신지체를 돌보는 기능과 책임은 문화적 및 성격적 기대로 인하여 정신지체아의 동생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나 누나가 할당된 역할을 더 잘 처리한다고 한다. 또한 역할긴장은 나이 또는 상대적 형제자매 위치에 무관하게 가족 내 모든 형제자매가 경험하고 정신지체아는 가족 내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의 역할로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되는데 이는 정신지체아가 나이가 들어 아이, 청소년, 성인이 되어도 계속되는 보살핌이 요구되어지며 형제자매에게 부모의 대리적인 역할을 요구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Grossman(1972)은 그들의 형제자매들이 자기가정에서 정신지체에 관한 공개적 토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장애형제와 어떻게 상호작용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거나 심지어 그들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미래에 장애아동을 낳게 되지 않을까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부정적인 감정상의 특성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는 또래의 다른 아동들보다 더욱 성숙되고 책임감을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mensson & Metalale, 1981). 또한 Abramavitch, Stanhope, Pepler & Corter(1987)에 의하면 다운증후군 아동의 손위/손아래 형제 모두가 또래에 비해 사회화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장애아동의 대학생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Grossman(1972)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중 45% 정도가 장애형제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경험하는 것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에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은 그들 또래의 다른 아동들과는 다른 감정상 적응상의 도전을 받게되므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Debra, 1991; Harvwy & Greenway, 1984)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Powell과 Gallagher(1993)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지원형태로 상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 장애형제의 교사역할을 하는 것, 학교에서 지원제공, 성인 비장애형제를

지원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Meyer와Vadasy(1994)는 장애형제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원은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나 성인형제에게 중요한 일이며, 올바른 정보를 얻음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은 두려움과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으로는 비장애형제를 위한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그들에게 장애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같은 경험을 하는 또래들끼리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큰 성과를 얻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감정과 고민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자신과 같은 기분을 느끼며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많은 친구들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Meyer & Vadasy, 1994)고 보고하였다.

2. 가족적응

장애아동의 가족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족적응이 장애아동의 특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자원 등과 같은 가족자원, 가족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태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력성 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Patterson & Garwick,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탄력성을 가족적응을 위한 설득력 있는 변수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가족통제감, 가족자원, 응집력은 가족적응에 매우 유용한 변인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장애유형, 장애의 심각도 등은 부모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증세가 높아지므로 가족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는 연구(Bristol, 1989; Friedrich, 1985)가 있는 반면, 장애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졌고 가족지지 정도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높다고 제시되기도 한다(노혜레나, 1990). 장애아동의 출생순위가 미치는 영향에서는 첫아이가 장애아동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최은정, 1990), 부모의 지지정도는 첫아이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종숙, 1988).

아동의 장애유형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마다 다르게 제시된다. 즉 행동장애 아동과 자폐아동 부모가 다운증후군 아동의 부모보다 거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이은덕, 1999)가 있는 반면, 정신지체와 지체장애 가족의 지지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한다(노혜레나, 1990). 한편,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언어능력, 도덕성, 인성특성, 과거경험, 연령, 결혼만족도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믿음 등이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 및 지각 또는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가족지지와 가족적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박종숙, 1988) 반면, 이와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노혜레나, 1990).

또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이 다르다는 보고들이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보다 모가 더 심한 가정문제와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본 반면 장애아동의 부는 모보다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비장애아동의 부에 비해 낮은 자존감, 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Bristol, 1988). 또한 가족의 종교적 배경, 사회적지지 정도가 장애아동이 가족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이은덕, 1999; 정청자, 1989).

3. 학교적응

학교는 아동들이 가정을 제외한 다른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는 매체가 되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이 학교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므로 교사, 다른 학생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운석, 1996). 학교생활 속에는 친구와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습에 임하는 것,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이러한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 즉,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라 하겠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 중 안영복(1984)은 학교적응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민영순(1978)은 학교생활의 조화와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를 부적응으로 보았다. 또한 학교적응의 수준의 초점을 학습 참여에 맞춘 장호성(1987)은 학습자가 지적,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응이라 보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요인, 가족관련 요인, 사회문화

적 요인 즉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업성적, 종교유무,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문제대처양상 등을 들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안규복, 1986; 주현정, 1998)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배기명, 1983; 현희순, 김양순 1999)와 배숙진(1988)은 남학생이 인지기술 영역, 학교환경, 학습 분위기 등에서 여학생보다 잘 적응하고 여학생은 교사와의 관계, 급우와의 관계, 수업참여, 자기통제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연령, 학업성적, 종교유무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좋을수록(양민철, 1995; 주현정, 1988; 최순복, 1985),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주현정, 1998)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김순희, 2002; 차유림, 2001) 학교적응력이 높으며, 문제대처양식에 있어서는 문제를 외면하는 대처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지원에 초점을 두는 대처전략을 더 잘 사용할수록 학교생활을 잘 적응한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McCubbin et al, 1985).

가정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 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구조적 결혼상태, 가족기능, 부모-자녀간의 관계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높은 정도의 적응수준을 보이며(김관희, 1997; 최지은, 2002; 차유림, 2001),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김관희, 1997; 최지은, 2002; 황교갑, 199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있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가족 장점이나 기능(고정은, 2002; 정혜경, 2002), 부모-자녀관계(구자은, 2000; 최지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공경환, 1998; 양국선, 2001), 가족지지 등의 요인들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는 주로 사회적 지지로서 연구되어졌으며, 이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있다(임유진, 2001; 한성희, 2002).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이 관계 즉, 친구와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많은 경우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현선(1998)의 결과에서는 친구관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중퇴경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국선(2001)과 실업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해정(2003)의 연구에서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장애를 가진 형제로 인한 부담감 및 가족의 적응과 학교적응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은 장애아동의 형제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갖지 않은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은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지역과 충청지역에 위치하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2곳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2004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하였다. 회수된 158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되었다고 판단된 19부를 제외한 139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부담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담감 측정도구는 이운화(2002)의 '장애아동 형제들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아동 형제들의 어려움의 영역으로 제시했던 ①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10), ② 심리적 부담감(8), ③ 사회활동의 제한(10), ④ 장애아동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11) 등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4점 척도의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운화의 연구에서는 부담감 척도의 전체 신뢰계수는 .70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가족적응의 부정적인 변화가 .71, 심리적 부담감이 .61, 사회활동 제한이 .72, 장애아동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가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담감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계수는 .80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역시 <표 3. 1>과 같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1> 부담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구 분		문항수	신뢰도
부담감		39	$\alpha=.8416$
하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10	$\alpha=.6203$
위	심리적 부담감	8	$\alpha=.7220$
영	사회적 활동이 제한	10	$\alpha=.7614$
역	장애아동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11	$\alpha=.7155$

2) 가족적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Olsen 등(1982)이 개발한 가족기능 평가도구인 FACESIII(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는 가족적응성과 가족 응집

성을 측정하고 가족체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가족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방응양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적응의 신뢰도 계수는 .9로 높게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방응양식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학교적응척도의 하위요인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계수는 .9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역시 <표 3. 2>와 같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 검증결과

구 분		문항수	신뢰도
학교적응		24	$\alpha=.9292$
하	교사관계	8	$\alpha=.8612$
위	교우관계	8	$\alpha=.7920$
영	학교수업	8	$\alpha=.7870$
역	학교규칙	8	$\alpha=.7747$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다각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인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장애아동 형제들이 경험하는 부담감과 가족적응 및 사회적응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셋째, 장애아동형제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인 형제가 느끼는 장애아동형제의 부담감이 가족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특성

분석결과 조사대상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 1> 과 같다.

<표 4. 1>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특성 (n=139)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65	46.4
여	74	53.2
나이		
8 ~ 13세(초등학생)	113	81.3
14 ~ 17세(중학생)	26	18.7
학교성적		
상	39	28.1
중	82	59.0
하	18	12.9
출생순위		
첫째	76	54.7
둘째	62	44.6
셋째 이하	1	0.7
종교의 유무		
유	96	69.1
무	43	30.9

조사대상자인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성별은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나이는 13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전체의 81.3%로, 13세 이상 중학생인 경우보다 많았다. 학교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9.0%), '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1%로 나타났으며, '하'에 속한다고 응답한 빈도는 18명(12.9%)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76명(54.7%), 둘째가 62명(44.6%), 셋째 이하가 1명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가 69.1%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2) 장애아동의 특성

조사대상 장애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 2> 와 같다.

연구대상자인 비장애형제의 장애인 형제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61.2%이며 여자인 경우가 38.8%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의 나이는 8세~13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42.2%, 3세~7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33.8%, 14세~17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23.7%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41.0%로 가장 많으며, 신

체장애가 20.9%, 정서장애가 15.1%, 자폐증이 10.8%, 언어장애가 10.1%, 시각·청각장애가 2.2%로 나타났으며, 장애발생 시기는 1년~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33.1%, 3년~5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28.1%, 5년~8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20.1%, 8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5.8%로 나타났다.

<표 4. 2> 장애아동의 특성

(n=139)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85	61.2
여	54	38.8
나이		
3 ~ 7세	47	33.8
8 ~ 13세	59	42.4
14 ~ 17세	33	23.7
장애유형		
신체장애	29	20.9
정신지체	57	41.0
정서장애	21	15.1
자폐증	15	10.8
언어장애	14	10.1
시각, 청각장애	3	2.2
장애발생 시기		
1년 이내	18	12.9
1년 ~ 3년 이내	46	33.1
3년 ~ 5년 이내	39	28.1
5년 ~ 8년 이내	28	20.1
8년 이상	8	5.8

3) 장애아동 가족의 특성

장애아동의 가족과 관련된 특성을 부모의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 3> 과 같다.

<표 4. 3> 장애아동 가족의 특성

(n=139)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아버지 연령		
31 ~ 40세	55	39.6
41 ~ 50세	56	40.3
51세 이상	28	20.1
어머니 연령		
31 ~ 40세	59	42.5
41 ~ 50세	64	46.0
51세 이상	16	11.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5	10.8
고졸이상	124	89.2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1	15.1
고졸이상	118	84.9
만족정도		
매우만족	31	22.3
보통	79	56.8
매우 불만족	29	20.9
가족의 수입		
100만원 미만	30	21.6
100 ~ 200만원	77	55.4
200 ~ 300만원	29	20.9
300만원 이상	3	2.2

장애아동의 아버지 139명 중 50세 이하에 속하는 79.9%, 어머니의 나이가 50세 이하인 경우는 123명으로 88.5%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학력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고졸이상인 경우는 124명으로 89.2%, 어머니가 고졸이상인 경우는 118명으로 84.9%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가족에 대한 만족정도는 '보통'에 해당된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56.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2.3%, '매우 불만족'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0.9%로 나타났다. 가정수입은 100~2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55.4%,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6%, 200~300만원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20.9%, 3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로 분석되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측정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 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장애형제의 특성 및 장애아동의 특성 그리고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구모형에 따라 주요 측정변인별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F검증의 경우 사후검증은 scheffe를 활용하였다.

1)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은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비장애형제의 종교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4>를 보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은 종교가 있는 경우의 평균이 95.47인 반면 종교가 없는 경우는 99.26으로 부담감에 있어서 3.79의 차이로 종교가 있는 비장애형제의 경우가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비장애형제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으로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부담감이 종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비장애형제의 장애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부담감의 평균은 21.36이며, 종교가 없는 비장애형제의 장애아동으로 인한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부담감의 평균은 24.06으로 나타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들이 높은 사회적 제한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은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장애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4>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n=139)

변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감		사회적 제한		장애아동관계의 부정적 변화		부담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65) 여(74)	29.84(4.71) 28.94(4.25)	1.072	19.25(3.28) 18.14(3.77)	1.379	23.82(4.19) 23.43(4.69)	.846	26.95(4.74) 26.96(4.61)	.025	99.86(12.60) 97.49(11.96)	.048
나이 8~13세(113) 14~17세(26)	29.55(4.60) 28.58(3.89)	1.090	18.54(3.53) 19.15(3.82)	.000	23.64(4.33) 23.50(5.03)	.446	27.03(4.75) 26.62(4.31)	.746	98.77(12.70) 97.85(10.44)	2.369
학교성적 상(39) 중(82) 하(18)	26.82(3.79) 26.80(4.23) 29.11(3.67)	2.532	18.72(3.59) 18.35(3.67) 19.94(2.99)	1.474	24.82(3.94) 22.94(4.69) 24.06(3.93)	2.517	28.05(4.53) 26.46(4.93) 26.83(3.17)	1.557	98.41(9.56) 94.56(12.82) 99.94(11.89)	2.338
출생순위 첫째(76) 둘째 이하(63)	29.80(4.68) 28.84(4.20)	2.106	19.25(3.46) 7.95(3.62)	.143	23.82(4.39) 23.37(4.56)	.000	27.00(4.70) 26.90(4.64)	.005	99.87(12.99) 97.06(11.27)	1.054
종교의 유무 유(96) 무(43)	26.66(4.24) 28.11(3.59)	3.858	18.40(3.72) 19.23(3.21)	2.862	21.36(4.71) 24.06(3.80)	4.121*	23.36(4.71) 24.16(3.81)	1.588	95.47(12.53) 99.26(10.61)	5.631**

*p<.05, **p<.01, ***p<.001

<표 4. 5>를 보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은 장애인 형제들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담감 전체 평균에 있어서 장애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5년인 경우의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담감의 하위요인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의 부담감 평균이 31.37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지체가 31.21, 정서장애가 27.19, 시각·청각장애가 26.6, 언어장애가 25.63, 자폐증이 25.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신체장애와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은 부담감의 하위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장애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경과시간이 5~8년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1~2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3~5년인 경우와 5~8년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은 장애아동가족의 특성 중 가족의 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6>을 보면,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가족의 수입이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동이 치료, 교육 등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장애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어머니의 취업기회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와 연결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오정영, 1994). 구체적으로 가족의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부담감이 100.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부담감 평균이 99.20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이 200~300만원까지 높아짐에 따라 부담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이상이면 스트레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수입이 장애아동가족으로 인한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일정수입이상이 되면 월수입에 관계없이 부담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담감 전체평균에 있어서 가족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과 200만

<표 4. 5>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n=139)

변 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감		사회적 제한		장애아동관계의 부정적 변화		부담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85)	28.67(4.26)	1.058	18.26(3.21)	1.258	23.82(4.08)	.756	26.94(4.64)	.029	98.25(12.49)	.053
여(54)	29.84(4.82)		17.76(3.65)		23.41(4.61)		25.84(4.56)		96.52(11.82)	
나이										
3~17세(47)	30.17(4.10)	1.195	18.49(3.70)	.565	23.53(4.86)	.118	26.85(4.95)	.343	99.04(12.53)	.092
8~13세(59)	29.07(4.48)		18.48(3.83)		23.81(4.83)		27.30(4.89)		98.66(13.53)	
14~17세(33)	28.76(4.95)		19.24(2.94)		23.36(2.99)		26.48(3.79)		97.85(9.91)	
장애유형										
신체장애(29)	31.37(3.42)	11.717***	18.79(3.17)	.4864	24.17(4.34)	1.053	25.93(4.79)	1.666	100.28(11.73)	.868
정신지체(57)	31.21(4.00)		19.07(3.44)		23.23(3.75)		26.42(4.08)		99.93(12.01)	
정서장애(21)	27.19(3.50)		17.95(4.22)		22.24(4.87)		27.33(5.13)		94.71(13.89)	
자폐증(15)	25.53(3.48)		18.60(4.29)		24.33(6.53)		27.40(5.64)		95.87(14.49)	
언어장애(14)	25.64(4.65)		17.79(3.45)		24.71(4.21)		29.57(4.33)		97.71(10.05)	
시각, 청각장애(3)	26.67(.57)		19.00(3.46)		26.33(2.52)		30.00(3.46)		102.00(7.55)	
사후검증(scheffe)	(1,3) (1,4) (1,5)									
장애발생후경과시간										
1년 이내(18)	31.91(3.85)	12.790***	19.68(4.52)	2.046	24.11(4.55)	.819	27.71(5.46)	.434	103.41(13.12)	2.500*
1년~3년(46)	31.11(3.22)		19.10(3.30)		23.97(4.04)		27.06(4.72)		101.24(12.35)	
3년~5년(39)	28.54(3.95)		18.26(3.19)		23.53(4.67)		26.84(4.22)		97.17(10.05)	
5년~8년(28)	26.43(4.51)		17.89(3.39)		22.44(4.55)		26.33(4.42)		93.09(10.12)	
8년 이상(8)	25.13(1.55)		16.25(2.43)		21.87(4.94)		25.62(4.41)		88.87(10.95)	
사후검증(scheffe)	(1,4)(1,5)(2,3)(2,4)(2,5)								(1.5)	

*p<.05, **p<.01, ***p<.001

원~300만원인 경우의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가족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가족에 대한 만족 정도, 가족의 수입에 따라 부담감의 하위요인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부담감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담감에서는 가족의 수입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에 대한 만족정도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로 인한 부담감의 차이는 '매우 만족'일 경우 부담감의 평균은 25.55로 가장 낮은 부담감 정도를 보였으며, '보통'인 경우의 평균은 26.79, '매우 불만족'인 경우의 평균이 29.62로 가장 높은 부담감 정도를 보였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가족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보통'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로 인한 부담감의 차이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평균이 29.77로 가장 높은 부담감 정도를 보였으며, 가족의 수입이 200~300만원인 경우의 가족관계로 인한 부담감의 평균은 24.14로 가장 낮은 부담감 정도를 보였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가족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보통'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와 200~300만원인 경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는 200~300만원인 경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수입에 있어서는 부담감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담감에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사후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 6>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

(n=139)

변 인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감		사회적 제한		장애아동관계의 부정적 변화		부담감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부연령										
31~40세(55)	30.28(4.68)	2.032	18.47(3.87)	.134	24.29(4.66)	1.156	27.46(4.76)	12.713	100.49(12.28)	1.226
41~50세(56)	58.59(3.99)		18.75(3.37)		23.02(4.69)		26.50(4.80)			
51세 이상(28)	29.14(4.34)		18.86(3.50)		23.47(3.36)		26.89(4.20)			
모연령										
31~40세(59)	30.51(4.70)	3.460	18.59(3.84)	.058	24.25(4.57)	1.947	27.47(4.79)	1.145	100.83(12.31)	2.232
41~50세(64)	28.48(3.91)		18.66(3.41)		22.81(4.50)		26.31(4.59)			
51세 이상(16)	28.69(5.12)		18.93(3.49)		24.44(3.39)		27.63(4.32)			
부학력										
고졸이하(15)	29.60(4.24)	.032	18.47(3.25)	.188	23.27(3.63)	.795	25.27(4.71)	.061	96.60(9.12)	2.894
고졸이상(124)	29.34(4.53)		18.69(3.63)		23.65(4.55)		27.16(4.63)			
모학력										
고졸이하(21)	29.43(3.65)	2.638	18.05(3.25)	.204	23.43(4.12)	.002	26.05(5.57)	4.354	96.95(10.83)	.618
고졸이상(118)	29.36(4.63)		18.77(3.64)		23.64(4.52)		27.12(4.48)			
만족정도										
매우만족(31)	25.55(3.46)	8.48***	17.68(3.34)	1.653	22.77(4.21)	1.382	27.00(4.41)	.593	93.00(10.75)	1.560
보통(79)	26.79(4.13)		19.05(3.51)		24.15(4.41)		27.24(4.56)			
매우 불만족(29)	29.62(3.54)		18.65(3.91)		23.03(4.78)		26.14(5.21)			
사후검증(scheffe)	(1,3) (2,3)									
가족의 수입										
100만원 미만(30)	29.77(2.18)	11.646***	19.67(2.31)	3.741*	24.23(3.47)	.472	25.53(4.27)	1.518	99.20(9.94)	3.206*
100~200만원(77)	27.13(4.35)		18.83(3.81)		23.64(4.86)		27.62(4.70)			
200~300만원(29)	24.14(2.99)		16.93(3.52)		22.86(4.21)		26.65(4.79)			
300만원 이상(3)	28.67(1.53)		21.00(3.61)		24.00(5.57)		27.00(4.66)			
사후검증(scheffe)	(1,2) (1,3) (2,3)								(1,3)	

*p<.05, **p<.01, ***p<.001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1)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비장애형제의 특성 중 종교의 유무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7>을 보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종교가 있는 경우의 평균이 29.23인 반면 종교가 없는 경우는 23.67로 부담감

에 있어서 3.79의 차이로 종교가 있는 장애아동형제의 경우가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장애인 형제의 특성 중 장애유형과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7>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가족적응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65) 여(74)	26.58(7.43) 28.32(7.52)	.196
나이 8~13세(113) 14~17세(26)	27.42(7.61) 27.92(7.15)	3.140
학교성적 상(39) 중(82) 하(18)	28.10(7.78) 27.83(7.56) 24.78(6.36)	1.396
출생순위 첫째(76) 둘째 이하(63)	27.08(7.56) 28.03(7.47)	.008
종교의 유무 유(96) 무(43)	29.23(7.21) 23.67(6.76)	18.299***

*p<.05, **p<.01, ***p<.001

<표 4. 8>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가족적응	
	평균(표준편차)	T/F
성별 남(85) 여(54)	28.67(4.26) 29.84(4.82)	1.058
나이 3~17세(47) 8~13세(59) 14~17세(33)	26.98(7.61) 27.97(7.03) 27.46(8.33)	.225
장애유형 신체장애(29) 정신지체(57) 정서장애(21) 자폐증(15) 언어장애(14) 시각, 청각장애(3)	22.21(5.49) 24.70(7.09) 31.81(6.05) 34.33(2.89) 34.71(1.98) 34.33(1.55)	18.776
사후검증(scheffe)	(1,3) (1,4) (1,5) (2,3) (2,4) (2,5)	
장애발생후경과시간 1년 이내(18) 1년~3년(46) 3년~5년(39) 5년~8년(28) 8년 이상(8)	20.89(2.89) 23.15(5.73) 28.69(7.42) 34.89(2.97) 35.87(1.72)	32.063***
사후검증(scheffe)	(1,3) (1,4) (1,5) (2,3) (2,4) (2,5) (3,4) (3,5)	

*p<.05, **p<.01, ***p<.001

<표 4. 8>을 보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가족적응 정도의 평균은 20.89로 가장 낮고 1~3년이 23.15, 3~5년이 28.69, 5~8년이 34.89, 8년 이상이 35.87의 순으로 8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가족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1년 이내인 경우가 3~5년,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1~3년인 경우가 3~5년,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3~5년인 경우가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의 가족적응의 평균이 22.21로 가장 낮으며, 정신지체인 경우의 평균이 24.70, 정서장애인 경우의 평균이 31.81, 자폐증이 34.33, 언어장애가 34.71, 시각·청각장애가 34.3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와 정신지체인 경우 각각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장애아동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

성 중 가족에 대한 만족 정도, 가족의 수입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9>를 보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은 가족에 대한 만족정도가 '매우만족'인 경우의 평균이 29.62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불만족인 경우의 평균이 25.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매우만족'은 '보통'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수입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가족적응의 평균이 21.07로 가장 낮았으며, 300만원 이상이 3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100만원 미만과 100~200만원, 200~300만원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100~200만원인 경우는 200~300만원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1)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 정도는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종교의 유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9>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가족적응	
	평균 (표준편차)	T/F
부연령 31~40세(55) 41~50세(56) 51세 이상(28)	24.67(7.26) 25.57(6.81) 26.96(7.21)	9.758
모연령 31~40세(59) 41~50세(64) 51세 이상(16)	26.34(7.12) 28.06(7.04) 29.00(6.66)	0.565
부학력 고졸이하(15) 고졸이상(124)	26.07(8.32) 27.68(7.42)	1.580
모학력 고졸이하(21) 고졸이상(118)	26.67(8.27) 27.66(7.39)	2.103
만족정도 매우만족(31) 보통(79) 매우 불만족(29)	29.62(3.54) 26.79(4.13) 25.55(3.46)	8.48***
사후검증(scheffe)		(1,2)(1,3)
가족의 수입 100만원 미만(30) 100~200만원(77) 200~300만원(29) 300만원 이상(3)	21.07(2.55) 26.99(7.65) 34.79(2.18) 35.00(4.00)	27.852***
사후검증(scheffe)		(1,2) (1,3) (2,3)

*p<.05, **p<.01, ***p<.001

〈표 4. 10〉 비장애형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사회적응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65) 여(74)	21.74(5.64) 22.86(5.91)	.853	19.46(4.31) 20.84(4.99)	5.375	19.12(5.07) 20.07(4.17)	5.375	19.68(4.78) 20.28(4.96)	.316	80.00(16.55) 84.05(17.58)	1.121
나이 8~13세(113) 14~17세(26)	22.42(5.83) 22.00(5.74)	.764	20.14(4.72) 20.42(4.81)	.058	19.63(4.62) 19.61(4.68)	.044	19.63(4.89) 20.54(4.81)	.005	82.06(17.36) 82.58(16.63)	.228
학교성적 상(39) 중(82) 하(18)	23.13(5.84) 22.51(5.84) 19.83(5.04)	2.115	20.90(4.72) 20.27(4.81) 18.33(4.00)	1.862	20.23(4.85) 19.77(4.60) 17.67(3.85)	2.023	21.03(5.44) 19.85(4.67) 18.44(4.13)	1.842	85.28(18.75) 82.40(16.75) 74.28(13.70)	2.610
출생순위 첫째(76) 둘째 이하(63)	22.16(5.74) 22.56(5.89)	.378	19.91(4.77) 20.54(4.67)	.040	19.71(4.79) 19.52(4.42)	.898	19.93(4.86) 20.08(4.91)	.061	81.71(17.19) 82.70(17.25)	.285
종교의 유무 유(96) 무(43)	23.60(5.51) 19.51(5.44)	16.477***	21.01(4.54) 18.37(4.67)	9.857**	20.01(4.78) 18.77(4.15)	2.170	20.94(4.84) 17.91(4.30)	12.450**	85.56(16.80) 74.56(15.63)	13.291***

*p<.05, **p<.01, ***p<.001

〈표 4. 10〉을 보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은 종교가 있는 경우의 평균이 85.56인 반면 종교가 없는 경우는 74.56으로 학교적응 정도에 있어서 종교가 있는 비장애형제의 경우가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수업을 제외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은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장애유형과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1〉을 보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은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의 학교적응 정도의 평균이 71.24로 가장 낮은 학교적응 정도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자폐증인 경우의 학교적응 정도의 평균이 27.93으로 가장 높은 학교적응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가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가 정신지체인 경우에도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와 같이 정서

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가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가 정신지체인 경우에도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와 같이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수업에서의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는 자폐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가 정신지체인 경우에는 정서장애, 자폐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규칙에서의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신체장애인 경우가 정서장애, 자폐증, 언어장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가 정신지체인 경우에도 장애인 형제의 장애유형이 자폐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11>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적응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평균 (표준편차)	T/F
성별										
남(85)	24.56(3.42)	1.043	16.62(3.51)	1.452	22.98(3.98)	.741	25.76(4.32)	.058	95.23(11.59)	.048
여(54)	23.45(3.62)		15.76(3.85)		22.62(4.11)		24.61(4.34)		94.62(11.99)	
나이										
3~17세(47)	21.77(5.82)	.425	20.36(5.43)	.047	19.45(5.23)	.101	19.53(5.12)	.760	81.11(18.58)	.259
8~13세(59)	22.81(5.11)		20.14(4.35)		19.83(4.04)		20.59(4.81)		83.37(15.29)	
14~17세(33)	22.30(6.92)		20.06(4.41)		19.52(4.78)		19.61(4.64)		81.48(18.59)	
장애유형										
신체장애(29)	18.48(4.48)	16.080***	17.62(3.67)	12.384***	17.69(4.24)	8.601***	17.45(3.69)	12.960***	71.24(13.51)	19.454***
정신지체(57)	20.25(5.64)		18.47(3.94)		18.07(3.85)		18.25(4.39)		75.04(14.91)	
정서장애(21)	25.48(4.69)		22.52(5.04)		21.62(4.24)		21.43(4.80)		91.05(13.88)	
자폐증(15)	27.07(2.25)		24.40(2.97)		24.13(4.17)		25.27(3.54)		100.87(8.05)	
언어장애(14)	27.93(1.54)		24.29(3.97)		22.07(4.43)		23.93(2.79)		98.21(8.82)	
시각, 청각장애(3)	27.67(1.53)		21.33(3.06)		20.00(4.00)		23.33(5.58)		92.33(9.02)	
사후검증(scheffe)	(1,3)(1,4)(1,5) (2,3)(2,4)(2,5)		(1,3)(1,4)(1,5) (2,3)(2,4)(2,5)		(1,4)(2,3)(2,4)		(1,3)(1,4)(1,5) (2,4)(2,5)		(1,3)(1,4)(1,5) (2,3)(2,4)(2,5)	
장애발생후경과시간										
1년 이내(18)	17.00(3.11)	36.173***	16.89(1.99)	19.826***	17.67(2.97)	8.967***	17.67(2.97)	11.458***	68.06(8.06)	27.066***
1년~3년(46)	18.72(4.43)		18.02(3.77)		17.93(3.65)		17.93(3.65)		72.76(13.24)	
3년~5년(39)	23.72(5.10)		20.13(4.66)		19.56(5.30)		19.56(5.30)		84.15(16.69)	
5년~8년(28)	27.96(2.49)		24.82(3.44)		23.46(3.73)		23.46(3.73)		99.93(9.39)	
8년 이상(8)	28.75(1.91)		24.25(3.45)		20.62(4.31)		20.63(4.31)		96.00(8.73)	
사후검증(scheffe)	(1,3)(1,4)(1,5)(2,3) (2,4)(2,5)(3,4)(3,5)		(1,4)(1,5)(2,4)(2,5)(3,4)		(1,4)(2,4)(3,4)		(1,3)(1,4)(1,5)(2,4)		(1,3)(1,4)(1,5) (2,3)(2,4)(2,5)(3,4)	

*p<.05, **p<.01, ***p<.001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에 따른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 정도의 차이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의 학교적응 정도의 평균은 68.06으로 가장 낮았으며, 5~8년 이상인 경우의 학교적응 정도의 평균이 99.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3~5년,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1~3년인 경우는 3~5년,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3~5년인 경우는 5~8년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관계에서의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장애 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3~5년인 경우와 5~8년, 8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1~3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3~5년인 경우와 5~8년, 8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3~5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5~8년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이 5~8년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이 1~3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이 5~8년인 경우와 8년 이상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3~5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5~8년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수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이 5~8년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1~3년인 경우는 5~8년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3~5년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5~8년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에서는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3~5년, 5~8년, 8년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1~3년인 경우는 5~8년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은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장애유형과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2>를 보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은 가족에 대한 만족정도가 '매우만족'인 경우의 평균이 89.42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불만족'인 경우의 평균이 71.0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매우만족'은 '보통'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장애형제의 가족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관계에서의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매우만족'은 '보통'과 '매우 불만족'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장애형제는 '보통'이나 '매우불만족'인 비장애형제보다 높은 학교적응 정도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 비장애형제의 사회적응 정도의 차이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평균은 66.93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족의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회적응 정도의 평균은

9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가족의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와 200~300만원인 경우 그리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장애형제의 가족의 수입정도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와 200~300만원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는 가족의 수입이 200~300만원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수업과 학교규칙에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가족의 수입이 100~200만원인 경우와 200~300만원인 경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장애형제의 부담감과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은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4. 13> 과 같다.

<표 4. 12> 장애아동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n=139)

변 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학교적응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부연령										
31~40세(55)	20.35(5.49)	8.140	18.98(5.49)	3.645	19.81(4.21)	.083	19.76(5.26)	.483	98.91(17.62)	2.364
41~50세(56)	24.54(5.54)		21.36(5.54)		19.46(5.13)		20.48(4.89)		85.34(16.77)	
51세 이상(28)	21.56(5.52)		20.25(5.51)		19.57(4.44)		19.50(4.05)		81.18(16.17)	
모연령										
31~40세(59)	23.18(5.39)	8.349	20.75(4.45)	5.112	19.47(4.29)	.208	19.68(5.13)	.222	83.08(17.37)	3.079
41~50세(64)	24.05(5.72)		21.23(4.30)		19.59(4.89)		20.23(4.85)		85.11(16.73)	
51세 이상(16)	23.69(5.35)		21.38(4.10)		20.31(4.88)		20.25(4.14)		85.63(15.82)	
부학력										
고졸이하(15)	21.07(6.96)	4.692	19.60(4.88)	.325	18.47(4.49)	.170	20.27(4.49)	.299	96.60(9.12)	1.143
고졸이상(124)	22.49(5.65)		20.27(4.82)		19.77(4.63)		19.67(4.95)		98.84(12.61)	
모학력										
고졸이하(21)	21.43(6.86)	6.216	19.95(5.31)	.665	18.71(4.68)	.091	19.57(4.56)	.027	79.67(18.82)	1.758
고졸이상(118)	22.50(6.02)		20.24(4.64)		19.79(4.61)		20.08(4.95)		82.60(16.90)	
만족정도										
매우만족(31)	25.26(4.55)	14.140***	22.42(4.69)	9.897***	20.94(4.57)	3.618*	20.81(4.72)	4.098**	89.42(14.53)	10.287***
보통(79)	22.75(5.73)		20.37(4.67)		19.78(4.55)		20.51(5.02)		83.39(17.53)	
매우 불만족(29)	18.10(4.82)		17.34(3.40)		17.83(4.44)		17.76(4.03)		71.03(13.40)	
사후검증(scheffe)	(1,3)(2,3)		(1,3)(2,3)		(1,3)(2,3)		(1,3)(2,3)		(1,3)(2,3)	
가족의 수입										
100만원미만(30)	17.17(2.60)	26.910***	16.53(1.94)	16.174***	16.10(2.09)	9.067***	17.13(3.27)	6.614***	66.93(6.54)	18.791***
100~200만원(77)	22.12(5.80)		20.13(4.98)		20.52(4.89)		20.16(5.22)		82.92(8.23)	
200~300만원(29)	27.66(2.09)		23.76(2.94)		20.55(4.19)		22.31(3.86)		94.28(8.75)	
300만원이상(3)	28.33(3.51)		24.00(4.00)		23.00(2.65)		22.33(5.51)		97.67(4.51)	
사후검증(scheffe)	(1,2)(1,3)(2,3)		(1,2)(1,3)(2,3)		(1,2)(1,3)		(1,2)(1,3)		(1,2)(1,3)(1,4)(2,3)	

*p<.05, **p<.01, ***p<.001

〈표 4. 13〉 비장애형제의 부담감과 가족적응과 학교적응

	1	2	3	4	5	6	7	8	9
1									
2	.615**								
3	.441**	.408**							
4	.529**	.405**	.573						
5	-.024	-.024	-.030	-.046					
6	-.154	-.056	-.084	-.034	.517**				
7	-.006	-.120	-.034	-.015	.493**	.494**			
8	-.141	-.001	-.147	-.169*	.451**	.439**	.585**		
9	-.554**	-.466**	-.521**	-.458**	.053	.075	.096	.286***	

비장애형제의 부담감 1.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2. 심리적 부담감 3. 사회적 활동의 제한 4. 장애아동 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가족적응 5. 가족적응
 학교적응 6. 교사관계 7. 교우관계 8. 학교수업 9. 학교규칙

비장애형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있어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학교규칙에서만 유의미한 부적상관계가 나타났다.

4.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형제들의 가족적응과 사회적응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본 연구의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인 비장애형제의 학교성적과 종교의 유무,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과 그리고 가족요인으로 가족만족도와 수입과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13〉과 같다.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에 있어서의 회귀식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가족적응의 회귀식은 65.7%, 학교적응은 54.6%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비장애형제의 종교유무와 장애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 가족의 수입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종교가 없는 비장애형제에 비하여 가족적응을 잘하며,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장애형제의 특성 중 종교의 유무가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가 있는 비장애형제의 경우 종교가 없는 비장애형제보다 가족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형제로 인한 가족의 상황에 종교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므로써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장애형제의 특성 중 비장애형제의 학교성적은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형제의 학

교성적은 장애인형제로 인한 가족 상황에 있어서 적응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특성 중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장애아동형제는 가족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경과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장애아동형제들 뿐 아니라 장애아동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장애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사건들에 융통성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방법들을 습득한 결과 가족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의 특성 중 가족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의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에 잘 적응하며,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장애아동형제가 가족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형제가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므로 가족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가정의 수입이 적은 경우 장애아동형제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애아동형제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쁠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의 상황에 더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적응을 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감의 하위요인인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와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제한, 형제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변화의 정도가 적을수록 심리적인 부담 정도가 적을수록 사회적 활동이 덜 제한 받을수록 형제관계의 부정적인 변화가 적을수록 가족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3〉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족적응		학교적응	
	b(S.E)	β	b(S.E)	β
상수	33.634		84.154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교성적	.873(.522)	.073	3.829(1.637)	.139*
종교의 유무 ¹	1.874(.862)	.116*	3.717(1.068)	.100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	2.075(.468)	.305***	5.142(1.932)	.330***
가족만족도	1.195(.626)	.105*	2.516(1.646)	.097*
수입	2.268(.696)	.216**	3.749(1.831)	.156*
부담감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646(.107)	-.386***	-1.233(.280)	-.302***
심리적 부담감	-.321(.109)	-.153*	-.745(.334)	-.202*
사회적 활동이 제한	-.200(.114)	-.119*	-.222(.301)	-.089*
형제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149(.104)	-.092*	-.498(.274)	-.189*
R ²	.679		.576	
adjusted R ²	.657		.546	
F	30.377***		19.439***	

(주) 1: 더미변수: 종교 있음 = 1, 종교 없음 = 0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교성적과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 가족만족도, 가족의 수입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장애형제의 특성 중 학교성적이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특성 중 장애아동에게 장애발생한 후 경과한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발생 후 경과한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가족적응을 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가족의 특성 중 가족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의 수입이 장애아동형제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가 가족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학교적응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에서의 만족감과 가족의 수입은 비장애형제가 학교에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심리적, 물질적 장치가 되므로 비장애형제가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의 하위요인 중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와 심리적 부담감, 사회활동의 제한, 형제관계의 부정적

변화로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변화의 정도가 적을수록 심리적인 부담 정도가 적을수록 장애아동으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제한을 덜 받을수록 그리고 형제관계의 부정적인 변화가 적을수록 비장애형제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출현으로 인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 정도는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의 특성과 장애아동의 특성, 장애아동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장애아동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비장애형제의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정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비장애형제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비장애형제의 건강한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통계분석을 한 결과 장애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부담감과 가족적응, 학교적응에 있어서 장애아동형제의 종교의 유무와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후 경과시간, 가족의 수

입에 의해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애아동형제가 장애인 형제로 인하여 경험하는 부담감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형제의 종교유무와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기, 가족의 수입에 따라 장애아동형제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장애형제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는 종교가 없는 비장애형제보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형제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 장애발생 후 경과된 시간이 짧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수입에 있어서는 가족의 수입이 많은 경우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경우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엔 가족의 상황적인 어려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느껴지는 부담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족의 수입이 많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에게 대한 기대감이 정상자녀에게 가중되어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학교성적과 장애발생시기,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심리적 부담감, 사회활동의 제한, 장애아동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는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이 오래된 경우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을 하며, 장애아동으로 인한 부담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부정적인 변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활동의 제한, 장애아동관계의 부정적인 변화가 적을수록 장애아동의 형제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장애아동 형제의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특히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과 가족의 수입은 장애아동형제들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형제들이 경험하는 부담감 역시 가족적응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장애아동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형제들이 장애인 형제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볼 때, 장애아동의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장애발생 후 경과 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형제에게 장애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경과 한 장애아동의 형제들은 가족의 상황에 적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며, 장애인 형제로 인한 부담감을 표현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면, 장애인 형제의 장애발생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현재의 상황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장애아동형제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형제들의 모임을 통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접수 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2일

【참 고 문 헌】

- 고경은(2001).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2000). **정신지체아, 일반아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가족응집력 및 적응성 수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2002).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를 위한 형제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우울감과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1997). **만성질환아 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소아질환 아동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점향(1999). **장애아어머니의 적응자원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진(2002). **가족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정신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주(2001). **장애아에 대한 비장애 아동의 가족변인에 따른 수용태도 연구**. 발달장애학회지 제5집 1호, 1~19.
- 박수연(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숙(1988). **정신박약아가 있는 가족의 가족기능과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원(1999).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신귀순(2001).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을 중심**

로. **한국가족복지학 제6권 3호.**

- 양숙미(2003).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 제8권 1호**, 69~84.
- 윤이화(1997). **정신지체 가족의 적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구(1998). **정신지체아로 인한 정상 형제자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림(2002). **정신분열병 환자의 질병기간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와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화·권진옥(2002). 장애아동형제의 부담에 관한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8**, 59~85.
- 정은순(1992). 정신지체아의 정상형제자매에 대한 자아개념과 좌절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23권 제1호**.
- 정은순(1992).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태도에 대한 지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청자(1988). **장애아 가족의 긴장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어머니의 대처자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상(2000). **장애아에 대한 어머니와 정상형제자매의 스트레스 차이 및 상호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차숙(2002). **가족탄력성과 비장애 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영란(1983). **신체장애아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운경(2001). **만성환자 가족의 부담감, 우울 및 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현정·김혜영(2003).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2호**, 137~162.
- Antonovsky, A. & Sourani, T.(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Epstein, N., Bishop, D., Byan, C., Miller, I. & Keitnor, G.(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 (2nd ed.)*. New York; uilford Press.
- Frey, K. Greenberg, M. & Fewell, R.(1989). Stress and coping among parents of handicapped childre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4, 240~249.
- Olson, D. H.(1993). Circumplex model marital and family system.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Olson, D. H., McCubbin, H., Barnes, H., Larsenm, A., Muxen, M, & Wilson, M. (1989).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rev. ed.)*. CA: Sage.